

## 덴마크 2005년도 농업개황

2005년 덴마크는 총 농산물 생산량 190만 톤 중 약 90%를 130여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고 이를 통해 6만 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돼지고기와 베이컨에 있어서는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다.

덴마크의 유명한 상호인 'DANISH'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고품질 상품에 쓰이고 있다. 이 상호는 몇 년 전 영국에 상륙한 이래 세계 각국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특히 일본 시장에서 커다란 성과 거두어, 일본에 수출하는 농산물 가치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 텔레비전, 기타 전자제품 수입액을 초과하고 있다.

수입이 이렇게 활발한 이유는 돈육사업 부문의 협동조합 시스템을 중심으로 농업 기간구조가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간 2500만 마리 이상의 돼지를 생산하는 1만 명 이상의 돼지 사육 농가가 결성한 협동조합이 돼지와 베이컨 공장을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생산 단계에서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from farm to fork) 공급 과정을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고, 식품안전성과 가축 후생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협동조합이 소유하는 도축 회사인 Danish Crown과 TiCan은 덴마크에서 생산하는 돼지의 95%를 가공한다. 이 두 회사와 이들의 사업 조직인 Danske Slagterier<sup>1)</sup>는 소비자 취향과 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 1. 덴마크의 낙농 산업

덴마크의 낙농 산업은 지속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덴마크의 낙농 농가들이 이러한 변화에 앞장서고 있고, 활발한 집중화를 통해서 현재는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농가들 중 일부가 덴마크에 있다.

덴마크의 낙농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 몇 차례의 합병 절차를 거쳐 덴마크의 낙농 산업은 하나의 거대한 낙농 협동조합과 38개의 소규모 협동조합과 개인 농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덴마크 전체 우유 생산량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고, 이 중 가장 큰 조합인 Arla Foods는 유럽 최대의 규모를 자랑한다. 모든 덴마크 낙농 농가들은 고도의 가공 과정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낙농제품 중 2/3 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 중 치즈가 가장 중요한 품목이다. 독일, 스웨덴, 영국이 주요 시장이며 대부분의 수출이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중동 지역과 일본 역시 중요한 시장이다. 덴마크 낙농 산업의 특징은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로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R&D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낙농 관련 업체들은 매년 새로운 종류의 치즈, 버터, 우유 등을 출시한다.

## 2. 유기농산물 시장 성장

덴마크 유기농산물 시장은 1980년대 중반부터 성장했고, 덴마크는 현재 유기농업과 유기농산물 소비량에서 선도적인 위치이다. 1988년 덴마크는

---

1) the Danish Bacon & Meat Council로도 알려져 있다.

유기농업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유기농 라벨을 도입했다. 국가가 관리하는 덴마크의 Ø 라벨은 덴마크 소비자들 대부분이 알고 신뢰한다. 덴마크의 모든 슈퍼마켓에서 유기농 식품을 구매할 수 있고, 심지어 주유소나 기차역의 간이매점에서도 판매한다.

덴마크에서 유기 농산물의 시장 점유율은 매우 높다. 덴마크 우유의 30% 정도가 유기농 제품이며, 유기농 시리얼과 야채의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유기농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어서 할인점에서도 다양한 유기농 제품(우유, 시리얼, 야채를 기본으로 한)을 제공한다.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덴마크 소비자의 2/3 가량이 이따금 유기농 식품을 구매한다고 한다. 소비자들이 유기농 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이유는 건강, 환경, 가축 후생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대부분의 소비는 도시 지역에서 이루어지며, 소득이 높을수록 유기 농산물 구입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일부 유기농 농가는 농가에서 직접 판매를 하거나 도시나 마을에 점포를 개설한다. 이러한 상점에서는 유기 농산품을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기농법이나 유기 가축 사육 방식도 배울 수 있다.

### 3. 세계 최대의 가금육 수출국

덴마크의 가금류(병아리, 칠면조, 오리, 거위, 닭) 생산은 연간 1억 3000만 두 수준으로 덴마크 농업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반면에 가금류 생산 농가는 320호에 미치지 못해 매우 적은 편이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생산량이 20% 증가하고 육류 품질도 향상되어 현재 덴마크 국민들은 연간 22kg이상의 가금육을 소비한다.

1990년 동안 덴마크 가금 산업 부문은 살모넬라(Salmonella) 박테리아를 박멸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병아리의 비율을 80%에서 2% 이하로 낮추었다. 동시에 덴마크 가금류 생산업자들은 성장 촉진용 항생제 사용과 사료용 육류 및 골분 사용을 금지하는데 앞장서왔다. 덴마크 생산자들은 이러한 항생제와 사료의 사용을 1997년에 자발적으로 포기했다.

이러한 높은 식품 안전성 기준은 수출에 크게 기여했다. 오늘날 덴마크는 가금류 생산량의 65% 정도를 수출하여 세계 최대의 가금육 수출국(생산량 대비)으로 자리매김했다. 덴마크는 100개 이상의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고, 유럽연합이 가장 큰 시장이고 그 뒤를 중동 지역과 아시아가 잇고 있다. 덴마크 가금육 산업은 가공육과 냉동육에 특화되어 있다.

#### 4. 유럽 최대의 쇠고기 소비국

덴마크는 낙농산업과 소 사육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쇠고기 생산과 이종 교배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덴마크는 가축 생산과 사육에서 선도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생산농가와 수의당국, 그리고 행정당국이 협력하여 최적의 생산 환경을 제공한다.

덴마크에는 약 170만 두의 축우가 있고, 연간 쇠고기와 송아지 고기 생산량은 15만 톤에 이른다. 덴마크 산 쇠고기는 국내에서 소비됨과 동시에 해외로도 수출된다. 특히 어린 비거세우(bulls) 고기는 남부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가장 큰 수입국이다. 최근 러시아도 주요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유기농 쇠고기는 전체 생산량의 3% 수준이다. Black and White Danish Dairy 품종이 덴마크 전체 사육 두수의 70%를 차지하고 Red Danish Dairy, Jersey, Crossbreeds 품종이 나머지 30%를 차지한다. 이외에도 상당수의 육우 품종을 사육하고 있다.

## 5. 협동조합

협동조합 운동이야말로 덴마크 농업 성공의 기틀이었다. 이제까지 덴마크 식품 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기업은 대부분 농민들이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의 목적은 농민들에게 가능한 최고의 경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협동조합이 농민들에게 원자재와 기타 생산 수단을 제공하고,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수매하여 가공, 판매한다는 의미이다.

덴마크의 협동조합은 1887년 설립된 이후 계속적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겪어 왔다. 최근 이루어진 Danish Crown과 TiCan의 합병 이후 62개의 소규모 도축 관련 협동조합이 합류했다. 이 결과 Danish Crown은 유럽 굴지의 도축 협동조합으로 성장했다. 낙농 협동조합도 이와 유사한 변화를 겪었고, 현재 하나의 대규모 조합과 38개 소규모 조합이 있다. 2000년 덴마크의 MD Foods와 스웨덴의 Arla 사가 합병하여 Arla Foods사가 탄생했다. Arla Foods에 우유를 공급하는 11,600명의 조합원들이 회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2004년 Arla Foods 사의 총 매출액은 1400억 크로네<sup>2)</sup>이고, 이 중 농업 부문 매출액은 1300억 크로네이다.

## 6. 전문자문기관

덴마크 농업 성장 요인 중 하나는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짜인 자문기관(advisory centers) 네트워크이다. 수십 년 동안 형성, 발전되어온 이 기관 역시 농민들 스스로가 소유하고 운영한다. 따라서 이 기관들은 중립적인 입

---

2) 238억\$ 상당(2005.9.1 기준)

장을 견지할 수 있다. 덴마크농업자문국(the Danish Agricultural Advisory Service)은 3,200명 규모이며, 약 50,000명의 농민을 지원하고 있다. 자문 서비스의 목적은 농민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재정 상태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자문국 업무의 대부분은 식품 품질 향상 및 식품 안전성 확보와 관련되어 있다. 이 외에도 농업 생산의 윤리적, 환경적 측면과 관련된 업무도 담당한다.

## 7. 지리적 환경

덴마크는 국토가 크지 않지만 기후와 토양 조건이 다양해서 지역에 따라서 상이한 농산물을 생산한다. 예를 들어, 남부와 동부 지역에서는 사탕수수를 이용한 설탕 생산이 활발하다. 다른 농업 부문과 달리 사탕수수 생산자들은 협동조합 형태가 아닌 유한책임회사인 Danisco Sugar를 통해서 설탕을 생산한다. 이 회사는 스웨덴, 핀란드, 독일, 리투아니아에서도 설탕을 생산한다. 또한 유럽연합 설탕 할당량(quotas) 중 약 7%에 해당하는 1백만 톤을 생산하고, 총 매출액은 10억€에 이른다.

Funen 지방은 덴마크 화훼의 중심지로, 온실에서 분화와 절화 그리고 온실 야채를 생산한다. 노지 채소와 묘목(nursery plant)은 노지에서 재배하고, 과일과 딸기류도 생산한다. 덴마크 화훼 산업의 80%는 대량 생산과 수출에 집중되어 있다. 덴마크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분화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Jutland 서부 지역은 사질 토양으로 인해 감자 재배가 활발하다. 식용, 종자용 감자 외에도 전분식품(starch), 감자 칩, 냉동감자, 껍질을 벗긴 감자 제품의 재료로도 생산된다.

## 8. 부문간 협력

덴마크농업이사회(Danish Agricultural Council) 산하의 Danish Agroindustries는 덴마크 내 주요 농기계 생산자들과 농업 및 농식품 부문 관계자들로 이루어진 상임위원회이다. Danish Agroindustries는 덴마크 내의 모든 농업 관련 부문(농기계, 가축 사육, 자문 기관, 교육 기관)을 총괄한다. 이 상임이사회의 목적은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농산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Danish Agroindustries를 통해서 정보와 경험을 교환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출처: 덴마크 농림수산부  
(유찬희 ruledes78@naver.com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